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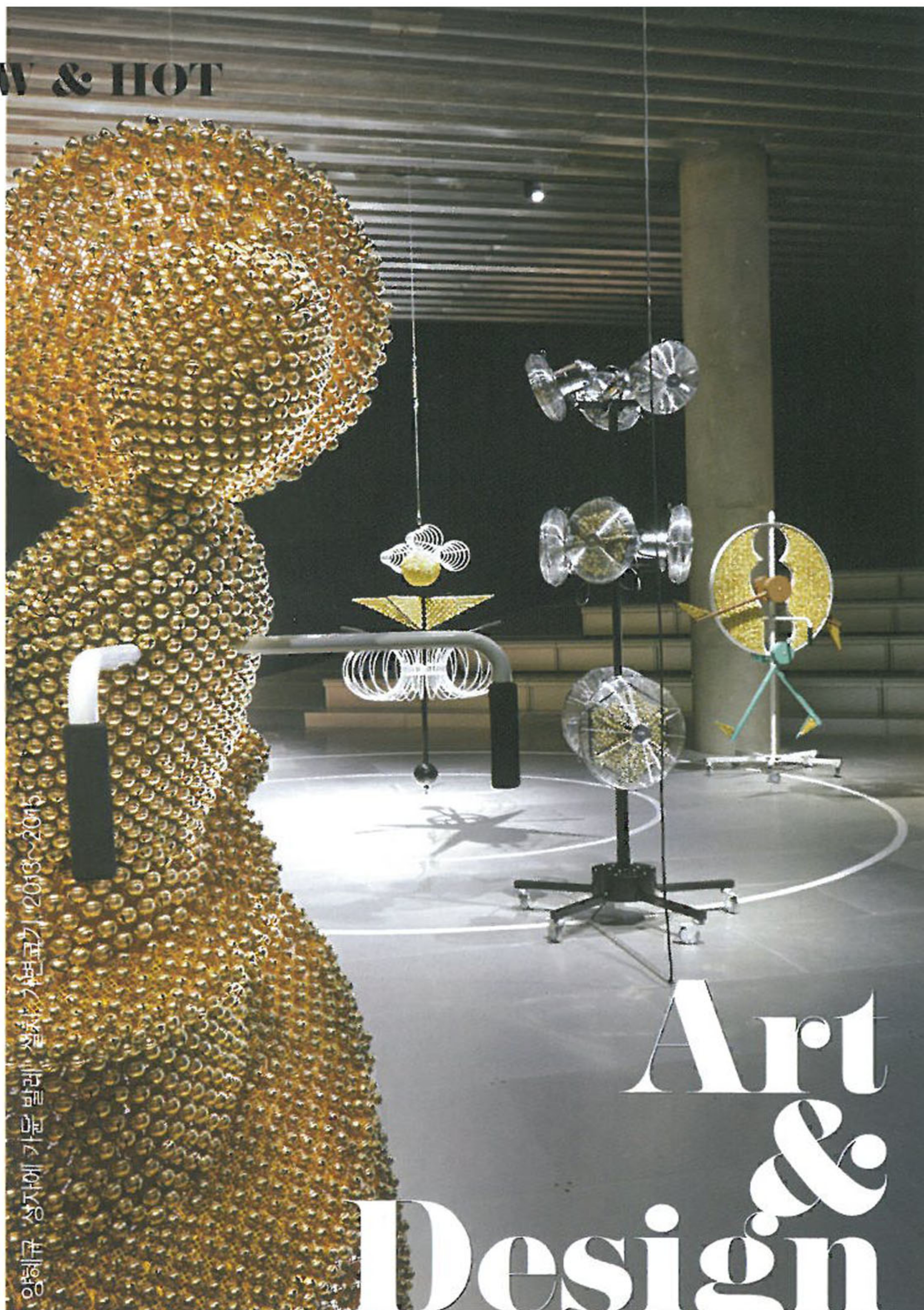
# AVENUE

프리미엄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MARCH 2015



**I AM  
QUIET**





양혜규, 상자에 기둥 빌레, 설치, 가변표기 2013-2015

# Art & Design NOW



양혜규, '중간 유형·중구 신부, 설치(인조 짚, 강철 스탠드, 분체 도장, 비취, 인도 방울, 조롱박, 황마실, 삼색 띠), 190x125x130cm, 2015.

눈과 귀를 열어두고  
 〈에비뉴엘〉이 전하는  
 문화 예술계 소식에  
 주목하라. 예술을  
 가까이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 코끼리의 이중성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해온 설치미술가 양혜규가 5년 만에 개인전으로 돌아왔다. 전시에 있어 간간히기로 소문난 리움이 활동 중인 한국 작가의 개인전을 열어준 건 꽤 오랜만이다. 전시 제목에 코끼리가 3번이나 들어가면서 정작 전시장에 코끼리는 없는 이유가 뭘까. 문학작품인 조지 오웰의 〈코끼리를 쏘다〉, 로맹 가리의 〈하늘의 뿌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지만 전시를 감상하다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녀가 주목한 코끼리는 천진한 모습을 하다가도 무섭게 돌변하는 존재다. 즉 파괴되는 순수한 자연이자 파괴하는 인간을 동시에 상징하기도 한다. 코끼리는 그 매개일 뿐이며 전시에는 코끼리 대신 자연과 인간의 공존 회복을 꿈꾸는 작가의 의도가 남아 있다. 처음으로 소개되는 주요 작품 '중간유형(2015)'은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 인도네시아의 불교 유적, 러시아의 이슬람 사원을 참조해 만들었으며 각국의 민속적 전통과 작가의 상상력이 합쳐졌다. 원시 농경 사회의 재료와 이를 사람의 손으로 직접 엮어 만드는 모습에서 국적이나 종교를 초월한 인류의 보편성을 발견한 작가는 이번 신작을 통해 그 보편적 신화와 다양한 실재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작가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광원 조각 '서울근성(2010)'도 볼 수 있다. 오랫동안 독일에 거주하며 활동해온 양혜규는 서울에 와서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후 자신이 마주하게 된 서울과 사람들을 추상적이고 해학적인 광원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오감을 동원하게 하는 대형 블라인드 설치작 '성채(2011)'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자신이 타인과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며 느끼는 감정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어두운 공간에서 몽롱하게 움직이는 빛과 나지막한 음성, 자연의 냄새가 분사되는 이 작품 속을 걷다 보면 작가의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회고전이라 할 만큼 규모가 큰 이 전시는 일상적이고 토속적인 재료를 통해 인간과 자연, 공동체 사회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오롯이 보여준다. 민족적 개별성과 동시에 인류 보편성을 말하고, 초라한 창고 피스 더미와 화려한 작품 사이의 간극을 말하며, 한국인이지만 한국이 낯설기도 한 양혜규는 이중성을 가진 코끼리와 닮았는지도 모른다. 5월 10일까지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문의 2014-6901





(뒤) 양혜규,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자춤 · 신용양호자 #240' 설치(보안 무늬 편지 봉투, 모눈종이, 색종이, 액자, 비닐 시트), 920×775cm, 2015.

(앞) 양혜규, '정지井址', 설치(괴목, 밤나무, 느티나무, 바둑판, 은행나무, 바퀴), 157×155×115cm, 2015.